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내가 엄마의 가게 일을 도와드리기로 약속한 날이다.

우리 엄마는 한동안 집에서 살림만 하시다가 우리 남매의 학원비라도 버시겠다고 어려운 장사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더구나 담배가게까지 같이 운영하시니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무척 바쁘시다.

그래서 나와 누나는 격주로 돌아가며 엄마 일을 도와드리기로 약속했다. 사실 우리 엄마는 무척 예쁘고 상냥하셔서 단골손님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장사가 잘되는 편이다.

“엄마, 학교 다녀왔습시다.”

나는 집에서 밥을 챙겨 먹고 가게로 나갔다. 어머니께서는 아직 점심도 못 잡수시고 가게일에 정신이 없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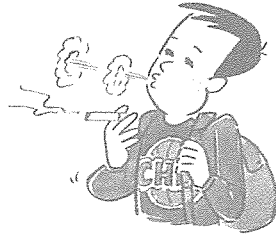
“엄마, 어서 점심 잡수세요. 제가 가게를 볼테니까요.”

어머니께서는 점심을 잡수시러 방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오시는 손님께 친절하게 인사를 하며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애, 담배 한 갑 줘.” 하면서 천원짜리를 내미는 손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고등학생이 분명했다. 나는 그 형의 얼굴을 뻘히 쳐다봤다.

“형, 우리 집에서는 미성

우리 집은 담배장사



박 권 희 · 대전 삼천초등학교 5

년에게 담배를 안팔아요.”

순간 그 형은 얼굴을 찌푸리며 내 얼굴을 톡 쳤다.

“엄마, 내가 미성년으로 보이냐?”

나는 덜컥 겁이 나기도 했지만 옳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자신있게 말했다.

“형, 비록 우리 가게에서 담배를 팔고는 있지만 담배는 무척 해로운 거래요. 더구나 청소년들한테는 더 해롭대요.”

그래도 그 형은 바짝바짝 다가서면서 담배를 달라고 했다. 그래도 나는 담배를 팔 수 없다고 버텼다.

그 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고 계시던 손님 중 아저씨 한 분이 끼어들었다.

“학생, 보아하니 고등학생 같은데…….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담배가 무척 해로운 거야. 그러니 담배를 피

우지 않는게 좋지 않겠어?”

그때서야 그 형은 슬금슬금 뒷걸음을 치며 가게 밖으로 나갔다.

“애, 너 몇학년이기에 그렇게 똑똑하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아저씨께서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용기가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다.

점심을 잡수시고 나오신 어머니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도 참 잘했다고 하시면서 담배의 해로움과 장사의 도덕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아무리 담배장사를 해도 사회의 질서는 꼭 지켜야 하는데……. 그리고 요즈음의 청소년들이 하루빨리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할텐데…….”

어머니께서는 혀를 꼰꼰 차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리셨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하얀 백지에 매직으로 ‘우리 가게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라고 써서 가게 유리창에 붙였다. 그런 나의 모습을 지켜 보시던 어머니께서 무척 흐뭇해 하셨다.

우리는 어릴 때 잠깐의 호기심으로 배운 담배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어른들도 청소년들의 흡연에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7]**

“아빠, 제가 불을 켜 드릴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누나와 나는 아빠께서 담배를 피우실 때마다 먼저 불을 켜려고 다툽니다. 담배를 피우실 때마다 불을 켜 드리는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아빠도 우리가 불을 켜 드리면 참 좋아 하십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뉴스를 듣고 담배가 몸에 아주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암에 걸리기 쉽다고 했습니다. 암은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아주 해롭다고 합니다.

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나는 불을 켜 드린 게 후회되었습니다.

누나와 나는 아빠 구출작전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금연! 금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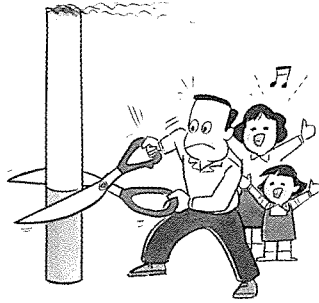
“금연! 금연!”

우리들이 아무리 외쳐 보아도 아빠는 듣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갑자기 담배를 끊을 수가 있겠니? 좀 봐주라.”

“안돼요, 아빠.”

아빠 구출 작전



양재석 · 제주 중앙초등학교 2

“조금씩 줄이기라도 하세요.”

우리가 자꾸 졸라대자 아빠께서는 담배를 줄이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루에 딱 세 번만 피울게.”

아빠께서는 식사 후에 딱 한 번씩만 피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피우려고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빠, 담배가 피우고 싶을 때마다 저희들을 부르세요.”

우리들은 그때마다 아빠 앞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연극도 하기로 했습니다. 아빠께서 빨리 담배를 안 피우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른이 되어도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㉞

33 ▶

한번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로
정신지체를 예방합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원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협회 시·도지부로 연락 주십시오.